

【특집】 구제역 확산, 그 파장과 전망】

■ 구제역 발생 현황 및 방역 대책

## “구제역(口蹄疫) 청정국 조기 획득이 과제”



배 상 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경인(庚寅)년 새해 벽두부터 경기 포천 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A형)이 4월에는 인천 강화(O형)를 시작으로 경기 김포·충북 충주·충남 청양 등 지역으로 전파되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한 오염지역(반경 500M)·위험지역(반경 3Km)과 역학관련 농가의 우제류 가축 살처분·매몰 등 양축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2,357억원)은 물론 동물·축산물의 교역 중단 및 소비 위축 등 국민정서를 불안케 하여 왔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수의 과학검역원과 지자체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농·축협 및 한우·낙농육우·양돈협회 등 축산관련 기관·단체가 연합한 근절대책 추진으로 지난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으며, 최단기간인 이동통제 해제(6월 19일) 후 3개월 여만에 각종 축산관련 행사 및 활동이 재개되었다.

방역본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역·위생·검역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주요전염병(브루셀라

병·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뉴캐슬병) 근절을 위한 질병 예찰과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농장방역실태점검 및 홍보·교육사업 등을 배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연중 상시방역대책에 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O형)은 연초에 발생한 양성농가 17건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경기 파주·고양·연천·김포에 이어 강원 평창·화천·춘천·원주·횡성을 비롯 인천·강화·여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양축농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교적 질병 청정지역인 내륙지방과 경기·강원지방에 12월 24일 현재 45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축산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대책 추진상황으로 67건이 신고되어 45건(67%)가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발생농장 주변 반경 500M 오염지역내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 동물 1,462농

장 279천두를 살처분·매몰하였고, 공무원·군인·경찰 등 105천명과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가 동원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 및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제한적인 예방접종과 발생농장 살처분제도를 병행 시행하기로 하였다.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5개 시군이며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소 약 13만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링(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12월 25일부터 실시하였다.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 하되, 확산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가 백신을 검토키로 하였다.

\* 예방접종 대상(잠정) : 7,016호, 소 133천여 마리

- 안동 : 1,446호 17천마리, 예천 : 4,106호 47천마리, 연천 : 396호 18천마리, 파주 : 723호 31천마리, 고양 : 345호 20천마리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예방

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고,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 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포 단계인 구제역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과 주변국의 발생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만이 청정국 지위가 확보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상호교차방어가 되지 않는 O, A, C, Asia 1 등 7종류의 혈청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O형과 A형이 발생되었고 현재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는 Asia 1형도 발생되고 있어 국경검역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외선과 열(56℃ 30분 불활화)·상대습도 60% 이하에 약하며, ph 7(중성)에서 안정하나 ph 6 이하의 산성이나 ph 9.5 이상의 알칼리성에서는 급격히 파괴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기간(농식품부, 구제역긴급행동지침서 참조)은 소에서 2.5

년, 물소에서 5년, 냉동육에서 3개월, 건초에서 6개월 이상 그리고 의복과 신발에서 2~3개월, 토양에서 1~5개월(가을·겨울)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주변국의 발생상황을 보면, 중국(몽골은 전국 확산)과 동남아 국가에서는 연중 발생하여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 국가로부터 건초·깔짚·산야초·톱밥 등이 수입 사용되고 있고, 불법휴대축산물 유입과 농장주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중국·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FTA에 대응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존전략은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으로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도 자명한 일이다.

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상황에 의하면, 내륙산악지방인 경북 안동 등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발생원인은 중국·베트남·태국 등 상재지의 외국인 고용 또는 농장경영인의 동남아 여행 시 오염되어 유입·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강원지방으로의 전파는 가축분뇨차량·사료차량·가축증개상·인공수정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본부에서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농장에 대하여 연 390개팀 890명의 초동방역팀을 투입·운영하여 동물은 물론 사람과 차량 등 이동통제와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련 우제류 사육농가 등 연 34,615호에 대한 일일 전화예찰과 발생농장·통제초소 등에 출입자소독기(60대) 운영 및 상황실 통제인력 등을 지원하여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축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 모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방역신념을 가지고 외부인 차량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소독 실시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관련 기관·단체 모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을 중심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보호와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구제역 조기 종식을 앞당겨야 하겠다. ☞

### 〈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축산농가 준수사항 〉

-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 외부인 및 근로자 통제 철저
-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석 금지
-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사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에 반드시 공·항만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 출입 금지
-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가축 매몰 및 이동통제 등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